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미숙 · 장영호 · 윤현경

안동과학대학교 치위생과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Mi-Sook Choi · Young-Ho Jang · Hyun-Kyung Yu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Received : 27 January, 2014

Revised : 11 March, 2014

Accepted : 3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Hyun-Kyung Yu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189, Seoseongil, Seohu, Andong

760-709, Korea.

Tel : +82-54-851-3663

+82-10-9936-8321

Fax : +82-54-852-9907

E-mail : yhk8321@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Duncan post-ho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The subjects were 411 dental hygiene students in A University in Gyeongsangbuk-do and K-University in Gyeongsangnam-do from November 4 to 15, 2013.

Results :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showe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e optimistic attitude towards the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The explanation power was 13%.

Conclusions : The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that can help increase the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and apply such program to the curricula.

Key Words : dental hygiene, satisfaction with major, self-efficacy, self-resilience

색인 :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치위생과

서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한 후, 자신이 전공하는 학업은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장차 직업인으로서는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다해야 하는 실정이다¹⁾. 특히 치위생과 학생들은 타 과에 비해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실습 상황에서 대인관계 문제와 심리적 갈등, 불안, 긴장,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하고²⁾, 국가시험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까지 안고 있

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³⁾. 즉 개인이 가진 신념이나 내적 자원에 따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노력하여 이겨내다가 하면, 정서적 문제나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처하기도 한다⁴⁾.

이와 같은 적응과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이 내부 또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나 역경에 직면했

을 때 행동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것을 말한다⁵⁾. 따라서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⁶⁾,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대학생활 중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전공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⁷⁾.

자아탄력성 외에도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전공만족을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 중의 하나가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Bandura⁸⁾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선택해야 하거나 도전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에 강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면 자신의 정서적 측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주어진 학업 및 과제를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이나 학과생활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⁹⁾.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전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아 전공에 대한 불만과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중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¹⁰⁾.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요인이 외적인 환경 요인에 있기 보다는 외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만족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학과에 속해 있더라도 환경을 받아들이고 통제하는 개인에 따라 전공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¹¹⁾.

현재까지 국내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A대학교 치위생과 학생과 경상남도의 K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전체 총 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2.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lohnen¹²⁾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⁹⁾과 박¹³⁾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성, 자신감, 감정통제 등 4개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¹³⁾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8, 김⁹⁾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0.86로 나타났다.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Sherer 등¹⁴⁾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홍¹⁵⁾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9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 3문항으로 2개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¹⁵⁾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5로 나타났다.

2.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raskamp 등¹⁶⁾이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과 하¹¹⁾, 김⁹⁾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과 하¹¹⁾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2, 김⁹⁾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0.9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한 도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평균비교는 one way ANOVA와 Duncan의 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 자기효

능감,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은 '3학년'에서 43.6%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99.0%, 종교는 '무교'가 63.5%로 가장 많았다.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및 해외진출'에서 3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성적은 '3.0-3.9'에서 64.7%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평균비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 자신감 등의 평균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인관계 효율성 요인의 학업성적에서는 '4.0이상'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3.0미만' 군과 '4.0이상'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1$).

낙관적 태도 요인의 지원동기에서는 '기타'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군과 '기타'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p<0.05$), 학업성적에서는 '4.0이상'이 3.47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사후검정결과 '3.0미만', '3.0-3.9', '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01$).

감정통제 요인의 학업성적에서는 '3.0-3.9점'이 3.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3.0미만' 군과 '3.0-3.9점', '4.0이상'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0.05$).

자신감 요인의 학업성적에서는 '4.0이상'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3.0미만', '3.0-3.9점' 군과 '4.0이상'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p<0.01$), 지원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전문직이어서' 군과 '적성과 흥미'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5$).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평균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평균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의 학년에서는 '3학년'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1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5$). 지원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군과 '적성과 흥미', '기타'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5$). 학업성적에서는 '4.0이상'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3.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ype	N	%
Grade	1	148	36.0
	2	84	20.4
	3	179	43.6
Religion	Christian	62	15.1
	Catholic	19	4.6
	Buddhist	66	16.1
	Atheist	264	64.2
Motivation for application	Consideration of high school academic grades	33	8.0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acquaintances	84	20.4
	High employment rate and heading abroad	162	39.4
	Aptitude and interest	30	7.3
	Pursuit of professional occupation	90	21.9
	Others	12	2.9
	Below 3.0 on GPA(grade point average)	83	20.2
Academic grades	3.0-3.9 on GPA(grade point average)	266	64.7
	Over 4.0 on GPA(grade point average)	62	15.1
Total		411	100.0

Table 2. Comparison of the mean value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resilience

	N	Self-resilience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ptimistic attitude		Emotional control		Self-confidence	
		M±SD	F(p)	M±SD	F(p)	M±SD	F(p)	M±SD	F(p)
	411	3.20±0.71		3.25±0.72		2.94±0.87		3.10±0.84	
Grade									
1	148	3.12±0.67	1.457	3.17±0.74	2.022	2.89±0.87		3.04±0.89	
2	84	3.23±0.66	(0.234)	3.21±0.71	(0.134)	2.88±0.92	1.063	3.04±0.82	1.411
3	179	3.26±0.75		3.33±0.69		3.01±0.85	(0.347)	3.18±0.81	(0.245)
Religio									
Christian	62	3.26±0.68		3.08±0.80		2.72±0.78		3.04±0.83	
Catholic	19	3.43±0.74	0.862	3.37±0.67	1.805	3.05±0.84	1.949	3.34±0.86	.591
Buddhist	66	3.19±0.61	(0.461)	3.19±0.66	(0.146)	2.87±0.87	(0.121)	3.10±0.81	(0.621)
Atheist	264	3.18±0.73		3.29±0.71		3.00±0.89		3.10±0.85	
Motivation for application									
Consideration of high school academic grades	33	3.02±0.72		3.01±0.75 ^a		2.86±0.83		2.81±0.80 ^a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acquaintances	84	3.12±0.71		3.33±0.73 ^{abc}		3.07±0.89		3.14±0.94 ^{ab}	
High employment rate and heading abroad	162	3.18±0.64	1.979 (0.081)	3.21±0.71 ^{ab}	2.257 (0.048) a<c	2.92±0.88	1.255 (0.283)	3.12±0.81 ^{ab}	2.872 (0.015) a<b
Aptitude and interest Pursuit of professional occupation	30	3.48±0.74		3.42±0.67 ^{bc}		2.71±0.82		3.55±0.89 ^b	
Others	90	3.26±0.75		3.20±0.69 ^{ab}		3.01±0.90		2.989±0.793 ^a	
Academic grades	12	3.43±0.92		3.65±0.63 ^c		2.625±0.678		3.12±0.56 ^{ab}	
Below 3.0 on GPA (grade point average)	83	3.09±0.61 ^a		3.04±0.71 ^a		2.73±0.88 ^a		2.89±0.86 ^a	
3.0-3.9 on GPA (grade point average)	266	3.19±0.73 ^{ab}	3.142 (0.044) a<b	3.26±0.69 ^b	6.811 (0.001) a<b<c	3.01±0.86 ^b	3.412 (0.034) a<b	3.10±0.80 ^a	5.842 (0.003) a<b
Over 4.0 on GPA (grade point average)	62	3.39±0.71 ^b		3.47±0.77 ^c		2.91±0.88 ^{ab}		3.37±0.91 ^b	

^{a,b,c} Duncan post by way of a black character in the same result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5%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미만', '3.0-3.9', '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01).

전공만족도 요인의 학년에서는 '3학년'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학업성적에서는 '4.0이상'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3.0미만', '3.0-3.9', '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01).

4.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상관관계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4)와 같다. 대인관계 효율성은 낙관적 태도 0.431, 감정통제 0.132, 자신감 0.379, 일반적 자기효능감 0.457, 사회적 자기효능감 0.678, 전공만족도 0.22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낙관적 태도는 감정통제 0.368, 자신감 0.469, 일반적 자기효능감 0.508, 사회적 자기효능감 0.296, 전공만족도 0.284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감정통제는 자신감 0.219, 일반적 자기효능감 0.22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신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0.671, 사회적 자기효능감 0.284, 전공만족도 0.267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0.390, 전공만족도 0.32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 0.192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n value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fficienc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N	Self-efficiency				Satisfaction with major	
		General self-efficiency		Social self-efficiency		M±SD	F
		M±SD	F	M±SD	F		
	411	3.34±0.55	(p)	3.40±0.70	(p)	3.41±0.50	(p)
Grade							
1	148	3.26±0.58 ^a	3.917	3.40±0.76		3.41±0.48 ^b	10.290
2	84	3.31±0.52 ^{ab}	(0.021)	3.42±0.63	.134	3.21±0.41 ^a	(0.000)
3	179	3.43±0.54 ^b	a<b	3.38±0.67	(0.874)	3.51±0.53 ^b	a<b
Religion							
Christian	62	3.28±0.57		3.44±0.66		3.31±0.50	
Catholic	19	3.36±0.54	.587	3.66±0.60	1.112	3.48±0.60	1.547
Buddhist	66	3.30±0.55	(0.624)	3.38±0.75	(0.344)	3.37±0.48	(0.202)
Atheist	264	3.37±0.55		3.37±0.70		3.44±0.50	
Motivation for application							
Consideration of high school academic grades	33	3.15±0.62 ^a		3.20±0.69		3.31±0.52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acquaintances	84	3.38±0.53 ^{ab}	2.305	3.34±0.66		3.37±0.56	
High employment rate and heading abroad	162	3.34±0.56 ^{ab}	(0.044)	3.40±0.68	1.805	3.41±0.48	1.719
Aptitude and interest	30	3.58±0.57 ^b	a<b	3.68±0.69	(0.111)	3.65±0.49	(0.129)
Pursuit of professional occupation	90	3.29±0.51 ^{ab}		3.39±0.71		3.42±0.50	
Others	12	3.49±0.52 ^b		3.55±0.93		3.46±0.43	
Academic grades							
Below 3.0 on GPA (grade point average)	83	3.17±0.58 ^a	7.967	3.34±0.69		3.25±0.47 ^a	10.402
3.0-3.9 on GPA (grade point average)	266	3.35±0.52 ^b	(0.000)	3.37±0.69	2.077	3.41±0.50 ^b	(0.000)
Over 4.0 on GPA (grade point average)	62	3.54±0.58 ^c	a<b<c	3.56±0.74	(0.127)	3.63±0.48 ^c	a<b<c

^{a,b,c} Duncan post by way of a black character in the same result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5%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5.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 중 전공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낙관적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효율성, 감정통제, 자신감, 사회적 자

기효능감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10.031, 유의확률 0.000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였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elf-resilience, self-efficienc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ptimistic attitude	Emotional control	Self-confidence	General self-efficiency	Social self-efficiency	Satisfaction with major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Optimistic attitude	.431 ^{**}	1					
Emotional control	.132 ^{**}	.368 ^{**}	1				
Self-confidence	.379 ^{**}	.469 ^{**}	.219 ^{**}	1			
General self-efficiency	.457 ^{**}	.508 ^{**}	.223 ^{**}	.671 ^{**}	1		
Social self-efficiency	.678 ^{**}	.296 ^{**}	0.032	.284 ^{**}	.390 ^{**}	1	
Satisfaction with major	.221 ^{**}	.284 ^{**}	0.069	.267 ^{**}	.321 ^{**}	.192 ^{**}	1

^{**}p<0.01

Table 5.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Research hypothesis
	B	S.E	β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hypothesis 1-1)	2,305	0.169		13,666	0	
Optimistic attitude (hypothesis 1-2)	0,018	0,049	0,025	0,362	0,717	Reject
Emotional control (hypothesis 1-3)	0,111	0,042	0,157	2,647	0,008	Accept
Self-confidence (hypothesis 1-4)	-0,028	0,029	-0,048	-0,955	0,34	Reject
General self-efficiency (hypothesis 2-1)	0,036	0,039	0,059	0,925	0,355	Reject
Social self-efficiency (hypothesis 2-2)	0,169	0,062	0,184	2,72	0,007	Accept
	0,03	0,046	0,041	0,645	0,519	Reject

F=10,031 p=0,000 R²=,130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전공만족도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 점수는 낙관적 태도 3.25, 대인적 관계효율성 3.20, 자신감 3.10, 감정 통제 2.94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⁹⁾의 연구에서는 낙관적 태도 3.59, 자신감 3.35, 대인적 관계효율성 3.23, 감정 통제 3.00 순으로 본 연구 결과는 간호학과 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순위는 모두 낙관적 태도가 높고, 감정통제가 낮은 순으로 같았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 낙관적 태도가 가장 높고 감정통제가 가장 낮은 결과는 다차원적인 탄력성의 속성 중 낙관적 태도와 같은 성격적 측면이 감정통제인 정서적 측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⁷⁾. 즉 낙관적 태도가 감정통제로 인한 자기행동을 조절하며 다른 요인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시켜 자아탄력성을 높인다면 학업성적 또한 높일 수 있는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개념은 동기를 결정하여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모든 학습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발달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볼 때¹⁸⁾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⁷⁾.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3.34, 사회적 자기효능감 3.40이었다.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⁹⁾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3.34, 사회적 자기효능감 3.3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 학업성적, 지원동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적성과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윤과 윤¹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원 등²⁰⁾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36세 이상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등²¹⁾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적인 학교생활 경험을 통한 자심감이 증가된 결과일 것이라 생각된다²⁰⁾.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41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등²²⁾의 연구에서는 3.51,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과 신²³⁾의 연구에서는 3.79로 나타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1학년과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은 실험실습이나 현장 임상실습으로 인해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스트레스로 연결되면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일시적으로 자신감이 위축되고 전공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예상된다²⁴⁾.

한편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⁹⁾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등²⁵⁾의 연구에서 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이와 김²⁶⁾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했으나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없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적응해가는 자아탄력성과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전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⁹⁾.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인 낙관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이 있었고, 설명력은 13%였다. 인생에서 낙관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역경에 대한 대처행동의 측면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회복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낙관적 태도를 격려해야 한다⁷⁾.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얻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²⁰⁾,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또한 격려하고, 자아탄력성과 함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 같은 내적 자원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2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에 의의를 두고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상북도의 A대학교 치위생과 학생과 경상남도의 K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전체 총 411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 점수는 낙관적 태도 3.25, 대인적 관계효율성 3.20, 자신감 3.10, 감정통제 2.94 순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3.34, 사회적 자기효능감 3.40이었고, 전공만족도는 3.41로 나타났다.
2.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 낙관적 태도, 대인적 관계효율성, 자신감, 감정통제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 중 전공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낙관적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고, 대인관계 효율성, 감정통제, 자신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10.031$, 유의확률 0.000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0; 16(1): 14-23.
2. Han HS, Won YS.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MBTI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of a region jeonlado and gangneung. *J Dent Hyg Sci* 2007; 13(1): 25-30.
3. Lee SW. The stress level and stress response method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Master's thesis]. Busan: Univ. of Inge, 2011.
4. Por J, Barribal L, Fitzpatrick J, Roberts J.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1; 31(8): 855-60. <http://dx.doi.org/10.1016/j.nedt>.

- 2010,12,023.
5. Block JH,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Collins WA: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980; 13: 39-101.
 6. Park MA.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book, 2009.
 7. Park JA, Lee EK.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11; 17(3): 267-76.
 8.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15-22.
 9. Kim DJ.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Master's thesis]. Seoul: Univ. of Hanyang, 2013.
 10. Yu JS, Choi SY. The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10; 10(5): 307-13.
 11.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 of Coun* 2000; 1(1): 7-20.
 12. Klohnen E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 Pers Soc Psychol* 1996; 70: 1067-79.
 13. Park HJ. According to self-perceived stress resilience, coping and depress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orea, 1997.
 14. Sherer M, Maddux JE, Merac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 51: 663-71.
 15. Hong HY.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Ewha womans, 1995.
 16. Braskamp LA, Wise SL, Hengstler DD. Student satisfaction as a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 Edu Psy* 1979; 71: 494-8.
 17. Park WJ.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m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 Ment Heal Nurs* 2009; 18(3): 240-50.
 18. Luthar SS, Cicchetti D, Becker B.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 2000; 71(3): 543-62.
 19. Yoon JA, Yoon YS. Comparing with self-efficacy and knowledge, attitudes abou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of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at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5): 729-39.
 20. Won YS, Park SY, Kim JS.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method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5): 909-19.
 21. Yoo KH, Cho NO, Um YR.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level of coping in nursing students. *J Med Coll* 1997; 3(2): 679-88.
 22. Kim SG, Koo YK, Jeong MA.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Korea Cont Soc* 2012; 12(8): 248-55.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248>.
 23.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6; 12(2): 170-7.
 24. Jeong GO. The effects of dental-hygiene students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on their self-efficacy and major adaptation and satisfac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1): 167-77.
 25. Kim BN, Oh HS, Park YS. A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1; 20(1): 14-23.
 26. Lee SM, Kim SH. Effects of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 Dent Hyg Sci* 2012; 12(3): 271-7.